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lliance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로 우수 정
교수 이영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issertator : Sujung Woo

Professor : Young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ing alliance'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were 157 married parents of young children(77 men and 80 women). We used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Kim & Lee, 2005), Quality Marriage Index (Jang, 2001), and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bidin, 1988) and analyzed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via SPSS PC program(17.0 ver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married males' avoidant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ir wives' parenting alliance.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s' anxious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totally mediated, and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s' avoidant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ir husbands' parenting alliance. In conclusion, the parenting alliance mediates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성인애착(adult attachment), 양육협력(parenting alliance),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지친 개인들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유대관계는 바로 가족관계이다. 특히, 행복한 가정의 필수조건은 부부가 만족하는 결혼생활이다.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Fincham, 1998). 부부간의 결혼만족이 낮을 경우, 부부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해치게 되며 결혼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부부간의 애착관계라고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예: 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 대부분의 결혼관계에 대한 애착 연구들은 안정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Davila, Bradbury, & Fincham, 1998; Feeney, Noller, & Callan, 1994;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 즉, 개인이 어떠한 성인애착유형을 지녔느냐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Brennan & Shaver, 1995). 애착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로서 경험되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Bowlby, 1988). 영아기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내적실행모델의 형태로 전생애 동안 계속되며, 이는 매일의 사고와 행동뿐 아니라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Bowlby, 1982). 특히, Hazen과 Shaver(1987)의 연구이후 성인기 애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가 영아와 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유대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영아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애착유형인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과 마찬가지로, 성인기 애착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의 3범주 모델로 제안하였다. 그 후,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연구를 종합하고 Bowlby(1973)의 내적실행모델을 체계화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믿음의 두 차원을 근거로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 있다.

한편, 애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범주보다는 연속적 차원으로 고찰함이 더욱 성인애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Fraley & Waller, 1998).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3범주 또는 4범주에 관계없이 회피와 불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애착의 유형들이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으로, 불안차원은 자기가 사랑받을 가

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표상차원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불안차원이 높으면 친밀한 대상과 가까워지고, 수용되고, 지지받으며, 확신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회피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편안해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타인표상차원과 관계가 있다. 회피차원이 높으면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고, 독립성과 자기개방이 높으며, 비난적인 표현 정도가 높다고 한다. 불안과 회피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애착체계가 성인기동안 활성화될 수 있는 주요 관계맥락은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유형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애착유형과 배우자와의 관계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Brennan과 Shaver(1995)는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은 신뢰롭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반면, 회피형이나 불안/양가형 애착을 지닌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하여 낮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Kobak과 Hazan(1991)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신뢰하고 배우자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지각하는 안정 애착의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보다 높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부의 성인기 애착유형과 결혼만족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애착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Osland, 2002). 이에,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고 애착이 불안정한 개인들의 결혼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련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유아기 자녀의 행동반경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요구 된다. 이는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서부터 부부간 협력과 도움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부간 양육 협력이란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서 서로 대화하고 지원해주며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배우자와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신숙재, 1997). 부부의 양육협력에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부모행동,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Abidin & Brunner, 1995; 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그러나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자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 때, 부부간에 갈등과 불만이 생길 것이기에, 자녀를 둔 부부에게 있어서 양육협력은 결혼만

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관계만족을 경험한다는 성차의 가능성을 제시한 Simpson(1990)의 연구결과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보다 더 만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정은, 1999; Feeny, 1994; Vangelisti & Daly, 1997)을 토대로, 성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부부의 양육협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성희, 한은주, 1998), 양육협력에 있어서 부부의 성차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성에 따라 양육협력과 결혼만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양육협력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의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은 어떠한가?
2. 부부간의 양육협력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 1) 아내의 양육협력은 남편의 성인애착차원(불안차원, 회피차원)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가?
 - 2) 남편의 양육협력은 아내의 성인애착차원(불안차원, 회피차원)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6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157명(남성 77명,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을 임의 선정 후, 각 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가정에 연구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참여에 동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평균 38세, 아내의 경우 평균 35세였다. 아내의 학력은 대졸 46%, 고졸 41%이었고,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 50%, 다음으로 고졸이 29%였다. 아내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4%, 전문직이 13%, 사무직 13%순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 31%, 자영업 29%, 전문직 15%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28%, 500만원 이상이 28%, 300~400만원이 26%였다. 결혼기간은 5~10년이 73%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녀수는 74%가 2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성인애착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를 김광은과 이위갑(200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울 측정하는 문항으로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총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애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불안 각 차원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Brennan 외(1998)의 연구에서는 회피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94, 불안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으며 김광은 외(2005)의 연구에서 회피와 불안 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두 요인 모두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회피요인은 .83, 불안요인은 .84이었다.

2) 결혼만족도

Norton(1983)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결혼생활 질 척도(Quality Marriage Index: QMI)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까지의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Cronbach α 는 .94이었다.

3) 부부 양육협력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8)의 양육협력도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총 20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또는 아내)이 부모로서 아내(또는 남편)와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평가 및 자녀문제해결에 대해 아내(또는 남편)와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남편(또는 아내)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아내(또는 남편)가 지각하는

것이다. Cronbach α 는 .8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2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양육협력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 총 262부를 아동들에게 배포하였다. 질문지 봉투에는 질문지와 더불어, 질문지에 대한 설명, 비밀보장,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였다. 원장님과 담임교사들에게는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질문지를 배포하고 1주일 후 유치원을 방문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며, 매 주 단위로 한 달간 질문지를 수거하러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총 262부의 질문지 중 157부의 질문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수거율은 60%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각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 차이를 보기위해 t 검증을, 부부양육협력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야 한다(절차1). 다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절차2).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했던 독립변인의 영향력(절차3)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완전매개변인이라 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만 이전 단계보다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개변인이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연구문제 결과 해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성인애착차원의 경우, 남편들은 불안차원의 평균

점수가 2.35점, 회피차원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나타났다. 아내들은 불안차원의 평균점수가 2.22점, 회피차원의 평균점수가 2.15점이었다. 양육협력에 있어서 남편들의 양육협력의 평균점수는 3.43점, 아내들의 양육협력의 평균점수는 3.69점이었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남편들의 경우 평균점수가 3.67점, 아내들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3.26점이었다.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 검증 (N = 157)

구분	남	여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애착의 불안차원	2.35(.53)	2.22(.54)	1.69
애착의 회피차원	2.23(.48)	2.15(.48)	1.16
양육협력	3.43(.60)	3.69(.75)	2.55*
결혼만족	3.67(1.04)	3.26(1.04)	3.29**

* $p < .05$. ** $p < .01$.

다음으로 성인애착차원, 양육협력,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애착차원과 양육협력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우, 성인애착과 양육협력간 관계에 있어서는 회피차원과 아내의 양육협력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92, p < .05$). 성인애착차원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불안차원과 결혼만족도($r = -.247, p < .05$), 회피차원과 결혼만족도($r = -.403, p < .01$)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아내의 양육협력과 이에 대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586, p < .01$).

이는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상대방과의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고 비난적 표현이 강할수록, 아내의 협력에 대한 지각이 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낮은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또한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의 욕구가 강한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양육협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편들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성인애착차원과 양육협력간 관계를 보면, 불안차원과 남편의 양육협력($r = -.392, p < .01$), 회피차원과 남편의 양육협력($r = -.559, p < .01$)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는 불안차원과 결혼만족도($r = -.333, p < .01$), 회피차원과 결혼만족도($r = -.694, p < .01$)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남편의 양육협력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733, p < .01$). 이는 아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높은 친밀감을 원하는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협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는 회피차원 역

시,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협력 정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내의 성인애착차원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도,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양육협력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인간의 관계

(N = 157)

변인	1	2	3	4
1. 불안차원	-	.253*	.010	-.247*
2. 회피차원	.393**	-	-.292*	-.403**
3. 양육협력	-.392**	-.559**	-	.586**
4. 결혼만족	-.333**	-.694**	.733**	-

주. 남성(대각선 위쪽), 여성(대각선 아래쪽)

* $p < .05$, ** $p < .01$.

2. 부부의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1에 따라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해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높은 결혼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간 양육협력($t = 2.55, p < .05$), 결혼만족도($t = 3.29,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육협력에 있어서 아내의 양육협력에 대한 남편의 지각이 보다 높았으며,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다.

3.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협력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값과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고 VIF는 5보다 작았으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부의 성인애착이 양육협력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1986)의 절차 1에 따라, 독립변인인 부부의 성인애착이 매개변인인 양육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회피차원은 아내의 양육협력에 대한 남편의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beta = -.292, p < .05$). 즉 남편은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아내의 협력에 대해 낮게 지각하

였다. 남편의 회피차원은 아내의 양육협력을 8.6% 설명하였다. 아내의 경우, 아내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각각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한 아내의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 = -.392, p < .001, \beta = -.559, p < .001$). 즉 아내의 경우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남편의 양육협력을 각각 15.4%, 31.2% 설명하였다.

〈표 3〉 부부의 양육협력에 대한 애착의 회피차원 및 불안차원의 회귀분석

(N = 157)

측정변인	남편의 양육협력		아내의 양육협력	
	β		β	
애착의 회피차원	-.559***		-.292*	
R^2	.312		.086	
F	34.538***		6.172*	
애착의 불안차원	-.392***		.010	
R^2	.154		.000	
F	13.790***		.007	

* $p < .05$, ** $p < .01$, *** $p < .001$.

2) 부부의 양육협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절차 2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인 양육협력이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의 양육협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아내의 양육협력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586, p < .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4.3%였다. 남편의 양육협력 역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beta = .733, p < .001$), 그 설명력은 53.7%였다. 즉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의 양육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표 4〉 부부의 결혼만족에 대한 양육협력의 회귀분석

(N = 157)

측정변인	남편의 결혼만족		아내의 결혼만족	
	β		β	
양육협력	.586***		.733***	
R^2	.343		.537	
F	34.430***		88.134***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부부의 양육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3에 따라, 부부의 성인애착과 양육협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결혼만족도에 대해 유의하였던 부부의 성인애착의 영향력이

〈표 5〉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애착의 불안 및 회피차원과 양육협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57)

변수	남편결혼만족도		아내결혼만족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β	β	
애착의 불안차원 양육협력	-.247*	-.253* .588***	-.333**	-.054 .712***
R^2	.061	.407	.111	.539
F	4.298*	22.301***	9.481**	43.924***
애착의 회피차원 양육협력	-.403**	-.254* .511***	-.694***	-.413*** .502***
R^2	.163	.402	.481	.654
F	12.825**	21.825***	70.563***	71.035***

* $p < .05$. ** $p < .01$. *** $p < .001$.

감소하거나 없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성인애착과 아내의 양육협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회피차원의 영향이($\beta = -.403, p < .01 \rightarrow \beta = -.254, p < .05$) 감소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피차원의 설명력은 16.3%에서 아내의 양육협력이 추가투입되면서 40.2%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 때 종속변인에 유의했던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만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인 부분매개에 해당한다. 즉, 남편의 경우, 애착의 회피차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아내의 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아내의 경우, 아내의 성인애착과 남편의 양육협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불안차원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beta = -.333, p < .01 \rightarrow \beta = -.054, n.s.$), 회피차원($\beta = -.694, p < .001 \rightarrow \beta = -.413,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불안차원의 설명력은 11.1%에서 남편의 양육협력변인이 추가투입되면서 53.9%로, 회피차원의 설명력은 48.1%에서 남편의 양육협력변인이 추가투입되면서 65.4%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내의 불안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던 영향은 남편의 양육협력을 통제할 경우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아내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던 영향은 남편의 양육협력을 통제할 경우 그 영향이 감소하였기에 부분매개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경우, 애착의 불안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었으며, 애착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부의 양육협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성에 따른 양육협력의 경우, 아내의 양육협력에 대한 남편의 지각이,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한 아내의 지각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편들이 가정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더 많은 관계로 인하여 아내가 보다 양육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 연구의 연구대상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남편들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들의 경우 전업주부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여성이 가사에 전념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직접적 참여나 책임수행보다는 자녀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접근 가능한 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Kwon과 Roy(2007)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남편들의 소극적 양육참여로 인해 아내들은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해 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의 성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결과(예: 이정은, 1999; Feeny, 1994; Vangelisti & Daly, 1997)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결혼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아내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과 책임 뿐

아니라,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이 강하기에 회사일과 같은 외부의 일에 보다 전념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아내에 비해 역할갈등을 느끼지 않는데서 오는 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둘째,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부부의 양육협력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애착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내의 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아내의 경우, 애착의 불안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었으며, 애착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편의 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즉 남편의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아내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은 낮았으며 이러한 측면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아내의 경우,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이 낮았으며 이 역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아내 애착의 불안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했다는 결과는, 상대방에게 몰입하는 애착의 불안차원이 높은 아내의 경우, 이러한 성인애착이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낮을 때 안정애착임을 감안할 때(Brennan, Clark, & Shaver, 1998), 남편이나 아내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서로에 대한 양육협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예: 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김혜선, 1981; Meyers & Landsberger, 2002;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보면,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으면 결혼만족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한혜영, 현명호, 2006)를 지지하였다. 다시 말해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Brennan과 Shaver(1995)의 안정애착의 경우 높은 결혼만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애착과 배우자 양육협력에 있어서는, 성인애착과 함께 배우자 협력과 지지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살펴 본 Meyers와 Landsberger(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결과,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착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살핌이나 사

회적 지지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부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이 낮았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양육협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자녀들의 경우, 부모들의 교육적 책임과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면서도 아직도 부모의 보호와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들의 부모는 서로간의 양육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Hughes와 Galinsky(1988)도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부부의 양육참여 역할이 더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때 부부가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를 얻지 못하거나, 물리적 도움을 비롯하여 정서적으로도 지원받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울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쌓일 것이다. 김혜선(1981)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간의 지지와 적절한 보살핌은 결혼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회적 지지 연구(장춘미, 2001)의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남편(또는 아내)의 지원과 협력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부의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협력이 매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에 의한 성인애착측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이나 면접 등의 측정방법을 통한 검증이 필요시 된다.

둘째, 연구대상 표집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중류층 부부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이러한 표집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표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로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젊은 남녀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낭만적 성인애착을,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한 지 10년 전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점에서 연구대상 차별화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들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이 매개변인임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

우,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서로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며, 양육에 대한 역할부담이 커져갈수록 부부간의 양육협력이 결혼만족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는 앞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김광은(2005).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광은, 이위갑(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25-239.
- 김민희, 민경환(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 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혜선(1981).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희,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정은(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영, 현명호(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Abidin, R. R.(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 Abidin, R. R., & Brunner, J. F.(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 31-40.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nnan, K. A., & Shaver, P. 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1995). Mothers' reports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52-171.
- Davila, J., Bradbury, T. N., & Fincham, F. D.(1998). Negative affectivity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467-484.
- Feeney, J. A.(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A.(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Vol. 5.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p. 269-308). London: Jessica Kingsley.
- Fincham, F. D.(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 543-574.

- Fraley, R. C., & Waller, N. G.(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Haze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en, C., & Shaver, P. R.(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ughes, D., & Galinsky, E.(1988). Balancing work and family lives: Research and corporate applications.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pp.140-163). New York: Plenum Press.
- Kobak, R. R., & Hazen, C.(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won, Y., & Roy, K. M.(2007). Changing social expectations for work and family involvement among Korean fa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8*(2), 285-305.
- Meyers, S. A., & Landsberger, S. A.(2002).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 159-172.
- Mikulincer, M., Florian, V., Cowan, P. A., & Cowan, C. P.(2002). Attachment security in couple relationships: A systemic model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dynamics. Special issue on Attachment and Family Relations. *Family Process, 41*, 405-434.
-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Osland, J. A.(2002). Theoretical model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t Albany.
- Simpson, J. 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Vangelisti, A. L., & Daly, J. A.(1997). Gender differences in standards for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03-219.

접 수 일 : 2010년 4월 23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16일